

브레디스헬스케어,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과제 수주...135억원 규모

- [중앙 뉴스] [브레디스헬스케어,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과제 수주...135억원 규모](#)
- [위클리 오늘]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수주](#)
- [머니 투데이] ['혈액으로 치매 진단'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 규모 국책과제 선정](#)
- [벤처 스퀘어] [브레디스헬스케어, '2024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선정](#)
- [메디게이트 뉴스]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 원 규모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 과제 수주](#)
- [약업 신문]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원 규모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 과제 수주](#)
- [바이오 타임즈]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 원 규모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 과제 수주](#)
- [메디포 뉴스]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원 규모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 과제 수주](#)

브레디스헬스케어,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과제 수주...135억원 규모

신현지 기자 | 승인 2024.10.14 14:37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브레디스헬스케어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5년간 총 135억원 규모다.



(왼쪽부터) 브레디스헬스케어 황현두 대표, 중앙대학교 주재범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강주현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태준 박사 (사진=브레디스헬스케어)

이 사업은 암 진단기기용 초고감도 3차원 나노광학 증강소재 개발을 목표로 총괄과 1,2,3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세부과제를 주관한다. 총괄과 1세부과제는 한국재료연구원이, 3세부과제는 나노스코프시스템즈가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나선다.

브레디스헬스케어가 주관하는 제2세부과제의 목표는 "다중 유전자 및 면역 진단용 고감도 바이오칩 개발"로, 10여종의 암 유전자 및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검출하는 첨단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2세부과제에는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및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는 중앙대학교(주재범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강태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강주현 교수)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재범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암 조기진단을 위한 플라즈모닉 기반 초고감도 다중 면역 분석 및 유전자 변이 검출용 바이오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암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초고감도 면역진단 분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GCLP)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성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환현두 브레디스헬스케어 대표는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혁신적인 기술로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올해 초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 아시아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신현지 기자 shj6369@hanmail.net

[위클리오늘] [스타트업]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수주

✎ 이진우 기자 | ⓒ 승인 2024.10.15 03:36

신보 '퍼스트펍권' 선정



[위클리오늘=이진우 기자] 헬스케어 스타트업 브레디스헬스케어가 135억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를 수주했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14일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며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 규모는 5년간 총 135억원 규모이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암 진단기기용 초고감도 3차원 나노광학 증강소재 개발'을 목표로 총괄과 1·2·3세부과제로 구성된 가운데,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세부과제를 주관한다. 총괄과 1세부과제는 한국재료연구원

이, 3세부과제는 나노스코프시스템즈가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나선다.

브레디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혈액 내 fg/mL 수준의 농도로 존재하는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면역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국내 상급 의료기관, 제약사,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연구분석 및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초고감도 면역진단 분야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GCLP)으로 지정됐으며,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

이 외에도 올해 초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해 아시아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혈액, 소변검사 결과와 라이프로그 등 디지털 표현형 및 헬스케어 멀티모달 자료를 수집·분석해 인지기능 장애 예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산자부 사업에서 브레디스헬스케어가 주관하는 제2세부과제의 목표는 '다중 유전자 및 면역 진단용 고감도 바이오칩 개발'로, 10여 종의 암유전자 및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검출하는 첨단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아울러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및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중앙대학교(주재범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강태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강주현 교수)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중앙대학교 주재범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암 조기진단을 위한 플라즈모닉 기반 초고감도 다중 면역분석 및 유전자 변이 검출용 바이오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암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레디스헬스케어 황현두 대표는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혁신적인 기술로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주관하는 '퍼스트펍권'에 선정된 바 있다.

'혈액으로 치매 진단'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 규모 국책과제 선정

머니투데이 | 최태범 기자

2024.10.14 21: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1418064679948&type=1>

기사주소 복사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브레디스헬스케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 규모는 5년간 총 13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암 진단기기용 초고감도 3차원 나노광학 증강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는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세부과제를 주관한다.

브레디스헬스케어가 주관하는 제2세부과제의 목표는 '다중 유전자 및 면역 진단용 고감도 바이오 칩 개발'이다. 10여종의 암 유전자 및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검출하는 첨단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2세부과제에는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및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앙대학교(주재범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강태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강주헌 교수)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혈액검사 방식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해 질환관리 보조 서비스를 자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기존 혈액검사 기술보다 감도가 1만배 정도 높은 디지털 면역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국내 특허가 등록됐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올해 초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아시아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혈액, 소변검사와 라이프로그 등 헬스케어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인지기능장애 예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이다.

황현두 브레디스헬스케어 대표는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혁신적인 기술로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회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DEMO DAY 사전 신청

12월 4일 (수) 낮 12시까지 참여신청 ▶



브레디스헬스케어, '2024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선정

강진희 2024년 10월 14일



비만을 최하위인 이곳, 날씬함의 비결은 '이 과일'이라고?
평생 다이어터 이희정

[다음 문서 읽기 >](#)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암 진단기기용 초고감도 3차원 나노광학 증강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정부지원금은 5년간 총 135억 원 규모다.

본 사업은 총괄과 1, 2, 3세부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세부과제를 주관하게 된다. 2세부과제의 목표는 다중 유전자 및 면역 진단용 고감도 바이오칩 개발로, 암 유전자와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과제에는 중앙대학교(주재범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강태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강주현 교수)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및 시료 전처리 기술에서 연구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중앙대 주재범 교수는 “플라즈모닉 기반의 다중 면역분석 및 유전자 변이 검출용 바이오칩을 개발해 암 조기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현두 대표는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으로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며 “혁신적인 기술로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더보기](#)

비만을 최하위인 이곳, 날씬함의 비결은 '이 과일'이라고?
평생 다이어터 이희정

[다음 문서 읽기 >](#)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 원 규모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 과제 수주

24.10.15 08:00 | 최종 업데이트 24.10.15 08:00



왼쪽부터 브레디스헬스케어 황현두 대표, 중앙대학교 주재범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강주현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태준 박사.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 규모는 5년간 총 135억 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암 진단기기용 초고감도 3차원 나노광학 증강소재 개발'을 목표로 총괄과 1~3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세부과제를 주관한다. 총괄과 1세부과제는 한국재료연구원이, 3세부과제는 나노스코프시스템즈가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나선다.

브레디스헬스케어가 주관하는 제2세부과제의 목표는 '다중 유전자 및 면역 진단용 고감도 바이오칩 개발'로, 10여종의 암 유전자 및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검출하는 첨단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임상 시험을 수행한다.

2세부과제에는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및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 연구역량을 갖춘 중앙대(주재범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강태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강주현 교수)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이미 혈액 내 fg/mL 수준의 농도로 존재하는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면역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상급 의료기관, 제약사,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연구분석 및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초고감도 면역진단 분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으로 지정됐으며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성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브레디스헬스케어 황현두 대표는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혁신적인 기술로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jwlee@medigatenews.com)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원 규모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 과제 수주

초고감도로 암 유전자 -단백질 바이오마커 여러종 검출 바이오칩 기술 개발 -사업화 중앙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연구역량 집결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입력 2024.10.14 08:08 수정 2024.10.14 08:43



브레디스헬스케어(대표이사 황현두, 김지나)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 정부지원금은 5년 간 총 135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암 진단기기용 초고감도 3차원 나노광학 증강소재 개발’을 목표로 총괄과 1,2,3세부과제로 구성되며,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세부과제를 주관한다. 총괄과 1세부과제는 한국재료연구원이, 3세부과제는 나노스코프시스템즈가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나선다.

브레디스헬스케어가 주관하는 제2세부과제 목표는 "다중 유전자 및 면역 진단용 고감도 바이오칩 개발"로, 암 유전자 및 단백질 바이오마커 10여 종을 동시 검출하는 첨단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2세부과제에는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및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역량을 갖춘 중앙대학교(주재범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강태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강주헌 교수)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중앙대학교 주재범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암 조기진단을 위한 플라즈모닉 기반 초고감도 다중 면역분석 및 유전자 변이 검출용 바이오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암 진단 정확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혈액 내 fg/mL 수준 농도로 존재하는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면역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상급 의료기관, 제약사,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연구분석 및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초고감도 면역진단 분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으로 지정됐으며,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

브레디스헬스케어 황현두 대표는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을 통해 인류의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우리 목표는 혁신적 기술로 진단과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며,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올해 초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 아시아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혈액, 소변검사 결과와 라이프로그 등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e) 및 헬스케어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인지기능장애 예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취소

인쇄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 원 규모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 과제 수주

☞ 정민구 기자 | ⌚ 승인 2024.10.14 09:41

암 진단 위한 '다중 유전자 및 면역 진단용 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수행
중앙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이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



(왼쪽부터) 브레디스헬스케어 황현두 대표, 중앙대학교 주재범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강주현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태준 박사(사진=브레디스헬스케어)

[바이오타임즈] 브레디스헬스케어(대표이사 황현두, 김지나)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기술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 규모는 5년간 총 135억 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암 진단기기용 초고감도 3차원 나노 광학 증강 소재 개발'을 목표로 총괄과 1, 2, 3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세부과제를 주관한다. 총괄과 1세부과제는 한국재료연구원이, 3세부과제는 나노스코프시스템즈가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나선다.

브레디스헬스케어가 주관하는 제2세부과제의 목표는 '다중 유전자 및 면역 진단용 고감도 바이오칩 개발'로, 10여 종의 암유전자 및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검출하는 첨단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2세부과제에는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및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앙대학교(주재범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강태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강주현 교수)이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한다.

중앙대학교 주재범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암 조기진단을 위한 플라즈모닉 기반 초고감도 다중 면역분석 및 유전자 변이 검출용 바이오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암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이미 혈액 내 fg/mL 수준의 농도로 존재하는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면역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상급 의료기관, 제약사,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연구분석 및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초고감도 면역 진단 분야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GCLP,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으로 지정됐으며,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성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올해 초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해 아시아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혈액, 소변검사 결과와 라이프로그 등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e) 및 헬스케어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인지 기능 장애 예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브레디스헬스케어 황현두 대표는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혁신적인 기술로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정민구 기자] news@biotimes.co.kr

저작권자 © 바이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민구 기자

브레디스헬스케어, 135억원 규모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국책 과제 수주

암 유전자, 단백질 바이오마커 검출하는 바이오칩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목표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등록 2024-10-14 08:45:00



브레디스헬스케어(대표이사 황현두, 김지나)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 규모는 5년간 총 135억원 규모이다.

본 사업은 암 진단기기용 초고감도 3차원 나노광학 증강소재 개발을 목표로 총괄과 1,2,3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레디스헬스케어는 2세부과제를 주관한다. 총괄과 1세부과제는 한국재료연구원, 3세부과제는 나노스코프시스템즈가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나선다.

브레디스헬스케어가 주관하는 제2세부과제의 목표는 '다중 유전자 및 면역 진단용 고감도 바이오칩 개발'로, 10여종의 암 유전자 및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검출하는 첨단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2세부과제에는 초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및 시료 전처리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앙대학교(주재범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강태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강주현 교수)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중앙대학교 주재범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암 조기진단을 위한 플라즈모닉 기반 초고감도 다중 면역분석 및 유전자 변이 검출용 바이오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암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이미 혈액 내 fg/mL 수준의 농도로 존재하는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면역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상급 의료기관, 제약사,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연구분석 및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초고감도 면역진단 분야 임

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성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올해 초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아시아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혈액, 소변검사 결과와 라이프로그 등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e) 및 헬스케어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인지기능장애 예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브레디스헬스케어 황현두 대표는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혁신적인 기술로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누구나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